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정치와 법,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정치 양극화, 봉당, 필터 버블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자료

<가>

아! 봉당이란 이름이 생긴 지는 벌써 오래다. 옛적 구양수(歐陽修)의 글을 보면 봉당이란 멀리 요·순 임금과 은·주 왕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 나라 선비가 전부 봉당에 참여해서 둘, 셋, 넷으로 나뉘어 이백여 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사(邪)와 정(正), 역(逆)과 순(順)의 분별에 뜻을 합하지 못하고 또한 분명히 정론을 세울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이다. 그러니 또한 고금의 봉당을 통틀어서 조선의 봉당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오래고 지극히 말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학(道學)을 너무 중히 여겼다. 본래 천하의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 몸뚱이가 따로 있고 저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 하기 마련이다. 이를 근심하여 옛 성현들은 예절을 높이고 착한 것을 밝혀서 사나운 마음과 쟁탈하는 기운을 이겨내도록 가르쳤다. 세력이나 권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욕심을 이기는 도덕의 학문을 배워서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도학의 이름을 자처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보통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학의 거짓 이름으로 봉당을 이뤄 시대를 호령하고 제 잘못을 타인이 말하지 못하게 한다. 지위가 높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므로 마침내 쟁탈하는 세력이 일어나 화란(禍亂)이 일게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 쟁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통 사람이니 그 화(禍)가 한 때이지만, 도학이 있는 사람들과 쟁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도학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화는 무궁할 것이다.

둘째, 명분과 의리를 너무 엄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봉당 싸움(朋黨之爭)에서는 스스로 군자(君子)라 일컫고 배척할 사람은 소인(小人)으로 여겨서, 뒤에 봉당을 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를 병증이라 여겼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을까? 남을 소인이라고 이름 붙여 깎아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조상까지 오랑캐의 부류로 몰아 버린다. 그러므로 명분과 의리의 설을 빌려서 전부 난적(亂賊)으로 몰아붙인 뒤에 비로소 유쾌하게 여기니, 이야말로 어질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 이진창, 『당의통략』, 「원론」 초역(抄譯)

<나>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반대’ 태도는 정치적 판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은 장학금 수령자를 결정하거나 직장의 동료가 될 사원 또는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고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지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자신과 지지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 각 정당 엘리트의 이념적 양극화에 더해, 일반 시민들

의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양극화의 결과, 현재 미국 사회는 정치 영역을 넘어서 비정치적 영역에까지 당파적 판단이 침투하는 현상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19세기 중반에 양당제가 확립되면서 미국 사회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정당 간의 대결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이었을 뿐 시민사회를 분열시킬 만큼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자발 결사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언론 기관의 수가 많아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데 유리했고, 이렇게 생성된 여론은 정당을 통해서 정치 사회에서 논의되었다.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시민 덕성, 그리고 정치적 상대자를 정당한 자격을 가진 경쟁자로 인정하는 정치문화는 미국의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게 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사회 변동의 결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관심사가 전환하면서 미국 사회를 지탱하던 결사체 활동이 쇠퇴하고, 신뢰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사회자본이 부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당 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당원 등 열성적 지지자 집단의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의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 그리고 유포자가 되었다. 양극화된 정치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각 정당의 열성적 지지자들은 상대방 정당을 악마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과거처럼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곧 정당이나 입후보자)을 고르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할 만한 정치인을 스스로 찾아내서 띄우고 선거에서 그 정치인과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선거운동원인 양 적극적으로 다른 유권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한다. 따라서 극단적 정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는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가치 있는 전략적 행위로서 의미 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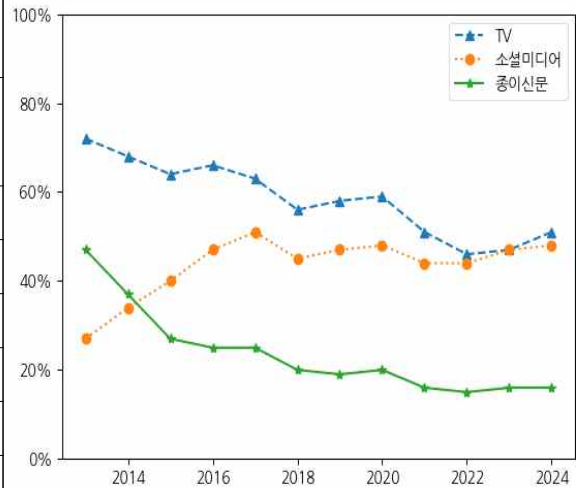
<다>

탈진실(post-truth)은 정치 과정에서 진실이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요 정치 행위자들은 정파적 선호와 감정에 따라 거짓말에 더 관대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탈진실 현상의 확산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대중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작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의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정보 획득과 의견 교류가 쉬워지면서 대중은 이제 뉴스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유통 또는 생산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은 탈진실을 조장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쉽게 원본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조작하거나 아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도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탈진실 확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래 사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오늘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의 검색 기록, 시청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 할 정보들을 미리 선택해 보여 준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선별된 정보만 주어지는 현상, 곧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구독하고 반복 시청할 경우, 1주일도 되기 전에 다른 성향의 영상은 추천 목록에서 거의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단 필터 버블이 만들어지면, 가짜뉴스는 훨씬 더 쉽게 확산하게 된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조차 필터 버블 안에서 반복 노출되면 사용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필터 버블 안에서는 정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다른 성향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트위터 이용자 2,300명의 뉴스 이용 데이터 50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들은 지지 정파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제로는 거짓일지라도 진짜 뉴스로 수용하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자신의 정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진짜 뉴스임을 인지하고도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몰아서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답변자 성향		지지 정당은 좋은 아이디어가 ~			상대 정당은 좋은 아이디어가 ~		
		매우 많다.	많은 편 이다.	적다. (또는) 없다.	매우 많다.	많은 편 이다.	적다. (또는) 없다.
공화당 지지	전체	23	52	25	2	15	83
	강함	31	53	16	1	11	88
	약함	10	51	39	2	21	77
민주당 지지	전체	22	53	25	2	20	78
	강함	30	55	15	2	20	78
	약함	10	51	39	2	21	77



〈표 1〉 2023년 미국인의 지지 정당별 각 정당에 대한 태도(단 위: %) 〈그림 1〉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률(복수 응답)

1-1. 〈가〉의 ‘붕당 싸움’과 〈나〉의 ‘정치 양극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표 1〉과 〈그림 1〉을 각각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재 전세계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대표하는 현상인 ‘정치 양극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배경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험생들이 고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과과정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과 비판적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해력이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에 관계했다면, 최근에는 〈표〉나 〈그래프〉 등 숫자와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데이터 문해력’과 디지털 소통과 관련된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새롭게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세 개의 제시문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치 문화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자료를 함께 제시해서, 이에 대한 능력도 함께 평가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이 문제 세트는 세 개의 제시문과 부가되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 텍스트들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세부 문항 2개를 구성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한국사	
	성취기준 1	[10한사04-03]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봉당 정치의 변화와 탕평 정치의 추진, 세도 정치의 전개 등 제도 개편과 정치적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
	관련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성취기준 1	[12정법02-01]에서는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영국과 미국 등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국가의 정부 형태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성취기준 2	[12정법03-03]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나>		
제시문 <나>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언어와 매체		
성취기준 1	[12언매01-04]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다>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당의통략』	이건창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6 (19세기)	163-165	제시문<가>	○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 『디지털사회』 45호(이슈브리프)	장한일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2023	(웹진)	제시문<나>	○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집 2호	송정민·김범수·이병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114	제시문<나>	○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집 2호	송정민·김범수·이병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92, 102, 107	제시문<다>	○
“Americans’ Dismal Views of the Nation’s Politics”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 Center	2023	45	<표>1	○
『디지털 뉴스 레포트 2024 한국』	이현우·박영흠·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07	<그림>1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이견창, 「당의통략」(이민수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1976. 3판), ‘원론’. 163-165쪽. 출제자 초역(抄譯).

<가>는 구한말 4대 문장가로 유명한 영재(寧齋) 이견창(李建昌)의 『당의통략』의 “원론”을 초역(抄譯)한 것이다. 조선시대 봉당사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당의통략』 말미에 총론 형식으로 제시된 “원론”은 봉당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해서 오래도록 이어져 왔지만 그 폐해가 유독 조선에서 크고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조선 봉당의 문제점을 크게 여덟 가지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했다. (제시문에서는 그 가운데 앞 두 개를 가려 뽑아 옮긴 것임) 조선의 봉당이 도학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도덕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력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명분과 의리를 과하게 적용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소인·오랑캐로 낙인찍어 배척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 (1) 장한일,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 『디지털사회』 45호(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이슈브리프, 2023), (2)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집 2호(2023). 114쪽. 두 글에서 발췌 및 재구성.

<나>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두 편의 글을 발췌해서 하나의 제시문으로 재구성했다.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정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일상에서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래 미국은 견해 차이를 존중하는 시민 덕성과 반대파와 공존하는 정치문화를 발전시켰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관심이 전환하면서 결사체와 사회자본이 약화하면서 당파성이 강화되었다. 현재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정치인을 주체적으로 띄우는 활동까지 주도하면서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제시문 <다>: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집 2호(2023). 92, 102, 107쪽. 발췌 및 재구성.

<다>는 탈진실 현상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분석한 글이다. 탈진실은 진실보다 감정과 정파적 선호가 정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대중이 뉴스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생산자·유통자로 변모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가 채택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정보만 주어지는 현상인 ‘필터 버블’은 그 핵심 기제이다. 필터 버블 안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는 정보에만 노출되고 그것과 다른 정보에는 접근하는 길이 차단되는데, 이는 가짜뉴스의 수용과 진짜 뉴스의 거부와 관련된다.

<표 1> PEW Research Center, “Americans’ Dismal Views of the Nation’s Politics”(September 19, 2023), p.45.

<표 1>은 2023년 미국인의 지지 정당별 각 정당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이 정치 양극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정당 지지자 가운데 당파성이 약한 지지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 이현우·박영흠·김선호, 「디지털 뉴스 레포트 2024 한국」(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07쪽.

<그림 1>은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 경로가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 매체인 종이신문과 TV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디지털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논제의 구성

1-1. <가>의 ‘붕당 싸움’과 <나>의 ‘정치 양극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 첫 번째 문항은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단계인 ‘비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유사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를 통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가>의 조선의 붕당 싸움과 <나>의 현재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그 양상이 폭력적이고 또한 정치적 상대방을 열등한 존재로 인지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이 더 중요한데, <가>의 붕당 싸움은 정치 엘리트인 도학자(선비) 집단이 주도한 권력 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해, <나>의 정치 양극화에서는 일반 시민인 열성적 지지자 집단의 주도성이 강해서 일상 영역의 정서적 양극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두 양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표 1>과 <그림 1>을 각각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 두 번째 문항의 전반부는 <표>와 <그래프> 자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후반부는 전반부의 데이터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 자료를 통해서 그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6. 채점 기준

[1-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붕당 싸움’과 ‘정치 양극화’의 공통점 서술】</p> <p>① 당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자신의 정파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반면에 상대 정파는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린다는 점.</p> <p>【‘붕당 싸움’과 ‘정치 양극화’의 차이점 서술】</p> <p>② 주체(또는 주도 집단)의 차이 - 붕당 싸움을 주도하는 집단은 정치 엘리트인 도학자(선비)인 데 반해, 정치 양극화는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p> <p>③ 범위의 차이 - 붕당 싸움은 정치 영역의 권력 쟁탈로 전개된 데 반해 정치 양극화는 비정치적인 일상의 영역까지 확산되어 지지 정파 차이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까지 진행되었다는 점.</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했으나, 서술의 체계성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서술했으나, 하나의 항목 서술이 불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서술했으나, 두 항목 서술이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가운데 하나의 항목을 빠뜨린 경우	5등급
	①, ②, ③ 가운데 두 항목을 빠뜨린 경우	6등급
	①, ②, ③을 모두 불충분하게 서술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을 모두 빠뜨린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1-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표 1>과 <그림 1> 해석】</p> <p>① <표 1> 해석: 미국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정치 양극화 상황에 놓여 있음.</p> <p>② <그림 1> 해석: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 경로가 변화했는데, 전통적 매체인 종이신문과 TV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디지털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늘었음.</p> <p>【미국의 정치 양극화와 뉴스 이용에서 소셜미디어 비중의 확대 현상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p> <p>③ 미국 ‘정치 양극화’ 현상의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후반 경제·사회 변동의 결과로 여론의 다양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미국의 시민사회와 정치문화가 부식되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정당 정치가 열성적 지지자의 극단적 성향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형성된 정치 양극화가 일상의 정서적 양극화로 확산하면서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음. <p>④ 미국인의 뉴스 이용에서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높아진 현상의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플랫폼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소셜미디어에서 채택하면서 이용자 맞춤으로 선별된 정보만 주어지는 필터 버블이 형성되었음. - 필터 버블을 통해서 특정 정치 성향의 정보에만 노출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극단화되었음.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 비중이 높아짐. <p>⑤ 정치 양극화와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 문제의 종합적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에 따른 필터 버블의 결과 정치 및 일상 영역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음.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했으나, ⑤의 종합적 설명을 빠뜨린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서술했으나, 일부 항목 서술이 불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의 항목을 빠뜨린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가운데 ③, ④ 두 항목을 빠뜨린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가운데 ①, ② 두 항목을 빠뜨린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불충분하게 서술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빠뜨린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1-1.

〈가〉의 ‘붕당 싸움’과 〈나〉의 ‘정치 양극화’는 당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자신의 정파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반면에 상대 정파는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붕당 싸움과 정치 양극화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붕당 싸움을 주도하는 집단은 정치 엘리트인 도학자(선비)인 데 반해, 정치 양극화는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붕당 싸움은 정치 영역의 권력 쟁탈로 전개된 데 반해 정치 양극화는 비정치적인 일상의 영역까지 확산되어 지지 정파 차이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까지 진행되었다. (308자)

1-2.

〈표 1〉은 미국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정치 양극화 상황에 있지만, 당파성이 약한 지지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림 1〉은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매체별 뉴스 이용 경로가 변화한 것을 보여 주는데, 전통적 매체인 종이신문과 TV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디지털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늘었다. 〈나〉는 미국의 정치 양극화와 일상의 정서적 양극화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서 〈표 1〉의 현상이 20세기 후반 경제·사회 변동의 결과로 여론의 다양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미국의 시민사회와 정치문화가 부식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정당 정치가 각 정당의 당원 같은 열성적 지지자들의 극단적 성향에 따라 작동된 데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다〉는 인터넷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정보만 주어지는 필터 버블 때문에 거짓 정보 확산이 쉬워졌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림 1〉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 비중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필터 버블은 정치 및 일상 영역의 극단적인 태도를 조장해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631자)